

# “모든 해법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어”

## 성웅 스님 (직지사 주지)

팔팔팔~~~ 힘차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 땀도 식힐 겸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계곡 물소리에 발을 담그고 초록빛으로 눈을 단장하고 나무 그늘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마음은 계곡물을 따라 떠돌다가 허둥지둥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직지사(直指寺)에 들어와 있으니 무슨 걱정 있으랴 싶었다. 직지라는 사명(寺名)은 선종의 가르침인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이곳에 들어오는 이는 누구나 분마음을 볼 것 같다.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다면 말이다.

성웅 스님은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일천 배를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고 있다. 어떤 이는 성웅 스님을 가리켜 ‘지계제일’이라 칭하기도 한다. 성웅 스님은 출가하기 전까지 회방사에서 2년 정도 고시공부를 하였고, 청량사와 강천사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다.

“속가에서도 결코 절도(節度)없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고(苦)가 많고 장애가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사회에서의 성공이 그 고통을 해결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그때 절에 머물면서 새벽 도량석 소리에 크게 발심했습니다.”

발심한 그 마음을 살려 동양방송에 ‘나는 출가를 하고 싶다. 훌륭한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글을 띄웠다. 방송을 듣고 의룡(義龍) 스님이 연락을 해 왔다. 의룡 스님(직지사에서 7년 동안 강주로 지냈다)을 따라 출가를 하였지만, 의룡 스님과 의연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해인사에서 4·5·6대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성웅 스님은 군 제대 후 출가를 하였으니 늦깎이 출가인 셈이다. 늦은 만큼 더 발심해야 하고 분심을 일으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해인사에서 3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였는데, 율력을 할 때면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일하고 율력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자진해서 하였다. 날마다 세제를 풀어서 닦고 뜨거운 물 부어서 소독했다고 하니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화장실 청소에도 이만큼 공력을 들이는데 다른 일은 말해 무엇하랴 싶었다.

성웅 스님의 일천 배 수행은 해인사 행자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새벽 도량석이 울릴 때까지 천일동안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도량석 하고, 종성하고 대중치고 나서도 공양시간 직전까지 법당에 머물면서 절 수행을 하는가 하면, 저녁 예불시간에도 어김없이 법당에 들어가신다. 백중기나 특별 기도가 있을 때면 대중들과 같이 사시에불과 더불어 정진을 하는 것이다. 올해로 세수 칠십인 노스님으로서 무리한 수행이 아닌가 싶어 걱정을 하였더니 “내가 절 수행을 그만 두는 날이 바로 내가 몸 바꾸는 날이지요”라고 답하신다. 열반에 들 때까지 정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화엄경> 약찬계를 보면 108번째 ‘초발심시 변경각(初發心時 便正覺)’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머지않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성웅 스님은 우리의 본성인 불성을 의심해 본 일이 없기에 수행에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가까운 시일에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동안거 하안거 때는 백일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데 바깥 출입할 일이 없지는 않을 터인데도, 미리 방을 놓아서 오롯이 수행에만 맘을 쏟는 것이다. 산철에도 바깥 출입을 할 때면 꼭 어른 스님께 허락받고 종무소에 보고를 하고 간다. 출가하신지가 몇 십 년이나 되는데 좀 느슨하게 지내도 되지 않느냐고 말을 거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미계, 비구계 받을 때 계율을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 굳게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일천 배를 올리는 것은 나 스스로가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원칙을 정했기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같이 더운 날에는 기도를 하다보면 하루에 두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세탁을 함에 있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대중들과 함께 탁발 나가신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도 아니란다.

성웅 스님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좋아해서 주로 지장기도를 하는데, 기도 때마다 ‘지장보살 예찬문’을 독송한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뒤라야 보리를 증득할 것이며, 지옥을 다 없애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衆生盡盡 方證菩提 地獄未除 誓不成佛)’라는 지장보살의 원력이 바로 대승불교의 목적이며, 대표적인 보살행의 이상이라 하였다. 스님은 지장보살 예찬문을 ‘대승보살 실천 열 가지 청규’라고 이름 붙여 초하루 법회 때 대중과 함께 독송한다. “첫 번째, 나는 살생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발원합니다.” 대승보살의 열 가지 청규 중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아도 자신의 수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웅 스님 또한 자신의 수행이 대중과 사회로 회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직지사 주지 소임을 몇 달 남겨 놓고 있는 스님에게 직지사서 이룬 불사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어른 스님께서 오랜 세월동안 큰 원력을 세워 해 오신 일이고 저는 그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을 뿐”이라 손 내짚는다. 이십년 넘게 상주 남장사에 머물렀던 성웅 스님은 그곳에서 많은 불사를 이루어 놓았다.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세워 지방 조직으로는 최초로 파라미타 상주지회를 발족시켰으며, 상주포교당 병설 유치원과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다. 무료 점심공양, 무료 진료서비스, 생일잔치, 명사 초청특강, 효도관광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해마다 치르는 행사이긴 하지만, 올 어버이날에도 상주 실내체육관을 빌려 ‘어르신을 위한 장수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전오백여명이 참석하여 실내체육관을 꽉 채웠다고 한다. 팔십이 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간의 용돈도 드렸단다. 지금도 상주 복지관과 자활센터의 관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 상주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과법을 풀어나간다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하고설친 복잡한 사회에서도 성웅 스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면 쉬이 해결될 것 같았다.

다실을 나서니 매미소리 요란하다. 매미소리에 묻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매미는 또 다른 정적(靜寂)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운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 천배 수행  
무료 점심공양 등 지역사회 위한 불사도  
“어려운 일도 인연으로 여기고 풀어나가야”



성웅 스님은

1940년 전남보성 출생. 1970년 해인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1년 해인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3년 해인사 강원 수료. 해인사 선원을 비롯하여 전국 선원을 돌면서 수선한지. 199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와 수료. 2004년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초심 호계위원장 역임. 상주 남장사 주지 역임. 1997년 남장사가 조계종 전법 시범도량으로 지정. 2000년 교정대상 본상 자비상 수상. 지금은 직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선지시을  
찾아서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흑단목염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목외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리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신분 ●오심, 구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목외선 : 금강약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결 천수결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름 관세음보살본문품 묘법연화경요름

**복상불소영가천장식**

(불사연인 권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